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영어 부사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박 지 혜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영어 부사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박 지 혜

박지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주 심 영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 목차

|                                |     |
|--------------------------------|-----|
| 영문초록 .....                     | iii |
| <br>                           |     |
| 제1장 서론 .....                   | 1   |
| <br>                           |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         | 5   |
| 2.1 부사의 정의 및 종류 .....          | 5   |
| 2.2 언어자료 및 분석방법 .....          | 12  |
| <br>                           |     |
| 제3장 영한 번역시 영어부사 유형별 번역양상 ..... | 14  |
| 3.1 부사의 빈도수 .....              | 14  |
| 3.2 부사의 유형별 번역양상 .....         | 15  |
| 3.2.1 시간부사 .....               | 15  |
| 3.2.2 방법부사 .....               | 27  |
| 3.2.3 정도부사 .....               | 39  |
| 3.2.4 빈도부사 .....               | 52  |
| 3.2.5 제한부사 .....               | 57  |
| 3.2.6 추가부사 .....               | 62  |
| 3.2.7 인식부사 .....               | 66  |
| 3.2.8 지속부사 .....               | 68  |
| 3.2.9 장소부사 .....               | 70  |
| 3.2.10 평가부사 .....              | 72  |
| 3.2.11 도구부사 .....              | 73  |

|                   |    |
|-------------------|----|
| 제4장 결론 및 제언 ..... | 75 |
| 영한 병렬 언어 자료.....  | 79 |
| 참고 문헌 .....       | 79 |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S  
OF ENGLISH ADVERBS**

Jihye,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ranslation patterns of English adverbs when they translate into Korean focusing on speech conversion, deletion, or addition of words or sentences. I examine *the Reader's Digest 100 - Reader's Digest 102*, original text on the basis of semantic analysis and its English-Korean translations with a direct comparative method depending on translation shifts. The reason why I especially selected 'adverbs' translation patterns' among eight parts of speech is that despite the high frequency of appearance of adverbs in sentences, there has been no study focusing on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adverbs.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shows the purpose and the reason why I choose the subject.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definitions of Korean adverbs and English adverbs respectively, and kinds of adverbs including specific examples. Also, the descriptions of selected texts and the method of the study is mentioned. The third chapter suggests and analyses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ly it shows the number of adverbs in English texts and then divide them into eleven kinds of adverbs. In each categorization, all the adverbs are classified in terms of modifier relationship like verb-level modifiers, adjective-level modifiers, noun-level modifiers,

phrase-level modifiers etc.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results above and proposes suggestions for a subsequent study.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version, verbalization with orientation has the highest frequency in Manner adverbs and adjectivalization only occurred in Manner adverbs and Degree adverbs while conversions related to prepositions appeared most frequently overall: Second, the percentage of deletion appears only up to 17.4 percent but some example sentences that become stronger or weaker meaning following the deletion shows quite important function in translation: Lastly, the addition of words or sentences is at a very low rate but it is rather meaningful because it functions to make the meaning of sentences more clear.

One of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is that lacking of examples makes it hard to have certain conclusions, so I expect more examples will be dealt with on next study. Another limitation is that the target adverbs are too extensive so it tends to be pointless. For this reason I suggest that future studies focus on certain kinds of adverbs like Manner adverbs, Deontic adverbs, Epistemic adverbs etc, or adverbs like 'suddenly', 'now', 'only' etc.

# 제1장 서론

번역이란 원천 언어를 한 자, 한 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 방법인 직역만으로 생산되는 번역작업이라기보다는 두 언어 간의 문법적·기능적·문화적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유로운 번역 방법인 의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하나의 창작물이다. 이에 따라 실제 번역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다양한 품사 변조 및 대체 등의 번역 변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김아영, 2011). Baker(2005: 22-23)도 ‘번역의 목적이 원천문화의 특색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예상독자의 사용역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야한다...(중략)...단어의 의미는 상당 부분 협의될 수 있고 구체적인 문맥 안에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번역시 두 언어 간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의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아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예문으로 제시한 것들이다.

(1) a. Elizabeth chatted happily with her mother. (RD 102<sup>1)</sup>: 30)

b.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와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다. (RD 102: 31)

위의 예문 (1a)에서 동사 ‘chatted’를 수식하는 부사 ‘happily’는 예문 (1b)에서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어 번역되었다.

영한 번역시 이러한 품사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1)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102집

(2) a. Women usually seek agreement based on each other's feelings. (RD 102: 18)

b. 여자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보아가며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RD 102: 19)

예문 (2a)에서 동사 'seek'을 수식하는 부사 'usually'는 예문 (2b)에서 '보통이다'라는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위 예문 (2a)의 동사 'seek'이 예문 (2b)에서 명사 '모색하는 것'으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천언어의 다양한 품사들은 목적 언어로 번역 될 때 다양한 다른 품사로 번역될 수 있다.

한편 아래 예문은 영한 번역시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3) a. A few polyps from one colony have ejected birth balls, which drift lazily to the surface like the first hesitant moments of a snowfall. (RD 100<sup>2</sup>): 88)

b. 한 군체에 있는 몇 개의 산호충이 탄생 주머니를 방출했던 것이다. 그 주머니는 첫 눈송이처럼 망설이듯 천천히 표류하면서 수면으로 올라간다. (RD 100: 89)

위 예문 (3a)에서 'lazily'는 예문 (3b)에서 '천천히'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주어가 무생물이므로 'lazily'를 '게으르게'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영한 번역시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

2)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100집

(4) a. ... and saw that she had been scalped as cleanly as if a surgeon had done it. (RD 102: 50)

b. 그는 엘리자베스의 두피가 마치 외과 의사가 일부러 걷어낸 것처럼 Ø 벗겨진 것을 보았다. (RD 102: 51)

(4a)에서 ‘cleanly’는 (4b)의 Ø표기가 있는 자리에 ‘깨끗하게’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

이와 같은 예문들은 영어와 한국어 언어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번역 양상의 예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의 동사나 명사, 형용사, 부사 등 모든 품사에 아울러 일어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어 부사’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시 그 변화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품사들 중에서도 특히 부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는 부사가 많이 발달된 반면에 영어는 그렇지 않다. 이희재(2009)는 영어는 부사보다 형용사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영어에서 부사가 많이 발달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이렇듯 부사의 낮은 중요도 때문에 영어부사의 한국어로의 번역시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기존에 번역과 관련한 ‘영한번역에서의 품사전환 연구(이경숙, 2003)’나 ‘영한번역에 나타난 영어의 명사중심성격과 한국어의 동사중심성격에 관한 연구(박혜림, 2011)’에서처럼 언어 전반에서 오는 번역의 차이점은 논의된 바가 있으나 부사의 번역 형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문장 속에서 부사는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어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부사를 종류별로 분류 하여 각 부사들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각기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를 「영한대역 Reader's Digest 100집-102집」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체 글을 이용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영어자료의 출처를 밝힌 후,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순차로 자료 분석을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도출된 자료를 다양한 각도로 분류하고 이것을 면밀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논의된 결과를 재정리하고 앞으로의 영어부사 연구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제언한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연구에 이용할 언어자료의 출처를 밝힌 뒤, 어떻게 그 언어자료를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 2.1 부사의 정의 및 종류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부사는 용언(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이며 동사, 형용사, 부사 혹은 문장전체를 수식한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 Sinclair(1992)는 영어에서 부사란 문장에서 언급된 행동,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가해주는 품사로, 주로 동사나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문장을 수식한다고 말한다.

부사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하위 범주가 존재하는데 다음은 영어 부사의 하위 범주와 그에 대한 정의이다. 아래의 정의는 대부분 Cowan(2007)의 분류와 그 순서에 따른 것이나 그 중 항목 ⑩은 기능영문법(Givón, 2002)을 한 번 더 참고하였다.

#### ① 방법부사(manner adverbs)

방법부사는 아래 예문 (5)에서처럼 ‘동사의 행동이 어떻게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대한 답이 가능케 한다. 이러한 방법부사의 예로

는 *erratically, hesitatingly, loudly, methodically, quickly, quietly, slowly* 등이 있다.

(5) a. He walked quickly across the plaza. (Cowan, 2007: 249)

b. 그는 그 광장을 재빠르게 지나갔다<sup>3)</sup>.

위의 예문 (5a)에서 ‘quickly’는 (5b)에서 ‘재빠르게’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문장의 화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광장을 지나갔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 ② 정도부사(degree adverbs)

정도부사는 아래 예문 (6)에서처럼 ‘얼마나 혹은 어느 정도까지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 정도부사의 예로는 *awfully, barely, completely, dreadfully, enormously, extremely, greatly, hugely, infinitely, minutely, really, relatively, slightly, somewhat, thoroughly, rather, very* 등이 있다.

(6) a. I agree completely with everything that has been said.

(Cowan, 2007: 249)

b. 나는 말한 모든 것에 완전히 동의한다.

위의 (6a)의 ‘completely’는 (6b)에서 ‘완전히’로 번역되었고 이것은 동사의 행위 즉, ‘동의 한다’는 말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준다.

---

3) 2.1에서 각 예문의 한국어 번역은 글의 전개상 필요하여 본인이 하였음을 밝힌다.

### ③ 지속부사(duration adverbs)

지속부사는 아래 예문 (7)에서처럼 ‘동사의 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속부사의 예로는 *briefly, momentarily, permanently, temporarily* 등이 있다.

(7) a. He's temporarily staying with his cousin until he finds a new place. (Cowan, 2007: 249)

b. 그는 새로운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임시로 그의 사촌과 머물 것이다.

위의 (7a)의 ‘temporarily’는 (7b)에서 ‘임시로’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이 말은 ‘동사의 행위가 얼마나 지속 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짧게 지속될 것’이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게 한다.

### ④ 빈도부사(frequency adverbs)

빈도부사는 아래 예문 (8)에서처럼 ‘얼마나 자주 그 동사의 행위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빈도부사의 예로는 *always, constantly, continually, never, occasionally, often, regularly, sometimes, usually* 등이 있다.

(8) a. She often comes in over an hour late. (Cowan, 2007: 249)

b. 그녀는 종종 한 시간 이상을 늦게 오곤 한다.

위의 예(8a)의 ‘often’은 (8b)에서 ‘종종’으로 해석되어졌는데 이는 ‘그녀가

얼마나 자주 한 시간씩 늦게 오느냐?’라는 물음에 ‘가끔씩, 종종’그러하다는 답을 줄 수 있게 한다.

## ⑤ 시간부사(time adverbs)

시간부사는 아래 예문 (9)에서처럼 ‘언제 그 행위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시간부사의 예로는 *already*, *earlier*, *later*, *now*, *subsequently*, *then* 등이 있다.

(9) a. He has already spoken to her about it. (Cowan, 2007: 249)

b. 그는 그것에 대해 이미 그녀에게 말했다.

위의 (9a)의 ‘already’는 (9b)에서 ‘이미’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언제 그가 그녀에게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발화하는 시점 보다 앞서서 말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가 말하는 시점에 앞서서 이미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 ⑥ 도구부사(instrumental adverbs)

도구부사는 아래 예문 (10)에서처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가 일어나게끔 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도구부사는 대부분이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예로 *mechanical*에서 파생된 *mechanically* 혹은 *hydraulic*에서 파생된 *hydraulically* 등을 들 수 있다.

(10) a. It has been mathematically proven to be correct. (Cowan, 2007: 249)

b. 그것은 수학적으로 옳다고 증명되었다.

위의 예문 (10a)에서 ‘mathematically’는 (10b)에서 ‘수학적으로’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그것이 어떤 과정 혹은 도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가능하다.

### ⑦ 장소부사(place adverbs)

장소부사는 아래 예문 (11)에서처럼 ‘어디에서 동사의 행위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장소부사의 예로는 *locally, abroad, inside, here, outside, there* 등을 들 수 있다.

(11) a. The grapes are grown locally. (Cowan, 2007: 250)

b. 포도는 지방에서 자란다.

위의 예문 (11a)에서 ‘locally’라는 단어는 (11b)에서 ‘지방에서’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는 ‘어디에서 포도가 자라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 ⑧ 추가부사(additive adverbs)

추가부사는 아래 예문 (12)에서처럼 ‘부가적인 어떤 것이 첨가되었는지 혹은 어떤 것이 또 다른 어떤 것에 더해졌는지’의 여부를 보여준다. 예로는 *also, as well, even, too* 등을 들 수 있다.

(12) a. The thief took the VCR too. (Cowan, 2007: 250)

b. 그 도둑은 VCR도 역시 훔쳐갔다.

위의 (12a)에서 ‘too’는 (12b)에서 ‘-도 역시’라는 말로 번역된다. 이는 도둑이 다른 것도 훔쳐갔는데 거기에 더해서 VCR도 훔쳐갔다는 것으로 ‘어떤 것이 또 다른 어떤 것에 더해졌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추가부사에 해당된다.

### ⑨ 제한부사(restrictive adverbs)

제한부사는 아래 예문 (13)과 같이 ‘어떤 행위나 앞에 언급된 일에 대해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제한부사의 예로는 *exclusively, just, merely, only, purely, solely* 등이 있다.

(13) a. You can only get off at this stop. (Cowan, 2007: 250)

b. 당신은 이 정류장에서 하차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13a)에서 ‘only’는 (13b)에서 ‘-만’으로 번역이 된다. 이것은 이 정류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리는 것’으로만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⑩ 태도부사(stance adverbs)

행동관련부사(Act-Related Adverbs)의 한 부분인 태도부사는 그 자체가 몇 가지 하위범주로 나뉘는데 Cowan(2007)은 이 범주를 특별히 명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Givón(2002)의 분류에 따라 태도부사를 평가부사와 인식부사로 하위분류 하였다.

### A. 평가부사(evaluative adverbs, deontic adverbs)

평가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아래 예문 (15)와 같이 태도 중에서도 ‘상태나 사건의 바람직함(desirability)’에 관련되는 것이다. 화자가 생각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옳은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14) a. Unfortunately, it turned out the other way. (Givón, 1993: 127)

b. 불행히도,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판명이 났다.

(14a)의 ‘unfortunately’는 (14b)에서 ‘불행히도’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원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어났다’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며 일어난 이 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내포한다. 이제 태도부사의 또 다른 하위분류인 인식부사를 알아보자.

### B. 인식부사(epistemic adverbs)

인식부사는 아래 예문 (15)에서처럼 명제의 진실, 그에 대한 확신 혹은 의심 또는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즉 화자가 주어진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실이라고 믿느냐의 문제이다.

(15) a. Perhaps she'll come.(Givón, 1993: 125)

b. 아마도 그녀는 올 것이다.

위의 예(15a)의 ‘perhaps’는 (15b)에서 ‘아마도~할 것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 이것은 화자가 ‘그녀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 ⑪ 연결부사(connective adverbs, linking adverbs)

연결부사는 아래 예문 (16)에서처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원래의 문장에 말을 첨가하거나 정리 혹은 대조 등의 장치를 통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표현하게 한다. *additionally, alternatively, moreover, therefore* 등이 그 예이다.

(16) a. The use of hydrogen would reduce the price of fuel for vehicles. Additionally, it would be good for the environment. (Cowan, 2007: 251)

b. 수소의 사용은 자동차 연료의 가격을 낮춰준다. 이에 더해, 그것은 환경에도 좋다.

위의 예에서는 (16a)의 ‘additionally’를 기점으로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6b)에서 ‘이에 더해’라고 번역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의미 첨가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사의 종류 및 그 정의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본 연구가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 2.2 언어자료 및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영한 병렬 언어 자료로, 영어 텍스트

와 이를 원문으로 한 한글 번역본이다. <자료 1>은 「영한 대역 *Reader's Digest* 100집-102집」 중 *Trapped in a Frozen Tomb* (2009)와 그 번역본인 「흙더미 속의 사투」 (2009)이고 <자료 2>는 *Brandon's Fight for Life* (2009)와 그 번역본인 「거식증 아들을 살려낸 부모」 (2009)이며 <자료 3>은 *The Biggest Storekeeper on Earth* (2009)와 그 번역본인 「관광명소가 된 핀란드의 시골 상점」 (2010)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어 자료에서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추출한다. 단, 이때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구나 분사 구문, 혹은 전치사와 합쳐져 생성된 부사구는 제외하고 접속부사도 부사라기보다 접속사적 성격을 많이 띠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그 다음 한국어 자료에서 영어 자료와 상응하는 단어를 추출하고 이 둘을 짝지은 상태에서 영어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의 부사를 종류에 맞게 분류한다. 이는 총 11종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부사의 종류와 개념의 정리는 2.1을 참고로 한다. 분류된 부사를 기본으로 영한 번역시 패턴을 찾기 위해 편의상 ‘부사가 어떤 문장구성요소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1차 분류하고<sup>4)</sup> ‘영한 번역시 그 대로 직역되는 경우와 직역되지 않는 경우, 직역이 되지 않는 경우 중 품사의 변화가 있는 경우와 첨가나 생략에 의해 의미변화가 있는 경우’의 기준을 참고하여 2차로 분류·분석한다. 분석한 부사는 부사 11종 중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고 각각의 단어가 문장의 어떤 구성요소를 수식하는지에 준거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앞에 언급했던 결과를 다시 한 번 개괄하고 앞으로 영어부사의 한국어로의 번역을 연구할 때 그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한다.

4) 부사의 문장 내 구성요소의 수식에 대한 분류는 이형필(2003)의 연구에 따라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 절을 수식하는 경우로 나누고 특수한 경우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언급하겠다.

## 제3장 영한 번역시 영어부사 유형별 번역양상

### 3.1 부사의 빈도수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각 부사의 종류와 번역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부사가 얼마만큼 조사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아래의 표는 그 결과를 한 눈에 보여준다.

〈표1〉 부사의 종류와 개수(※괄호 안은 반올림하였음)

| 부사의 종류 | 개수(%)    |
|--------|----------|
| 시간부사   | 44(27.3) |
| 방법부사   | 32(19.9) |
| 정도부사   | 29(18.0) |
| 빈도부사   | 15(9.3)  |
| 제한부사   | 13(8.1)  |
| 추가부사   | 13(8.1)  |
| 인식부사   | 6(3.7)   |
| 지속부사   | 4(2.5)   |
| 장소부사   | 2(1.2)   |
| 평가부사   | 2(1.2)   |
| 도구부사   | 1(0.6)   |
| 총합     | 161(100) |

위의 표는 각 부사 종류와 그에 상응하는 부사의 결과이다. 표의 각 부사는 Cowan(2007)의 분류에 따른 것이고 이 중 접속부사는 부사라기보다는

접속사적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제외 하였다. 태도부사는 평가부사와 인식부사로 나뉘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바로 그 하위 분류인 인식부사와 평가부사를 하나의 범주로 하였다. 위의 표는 부사의 개수가 많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제시 하였다.

조사 결과 부사의 종류 중 시간부사, 태도부사, 정도부사가 각각 44(27.3%), 32(19.9%), 29(18.0%)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반해 도구부사, 평가부사, 장소부사가 각각 1개(0.6%), 2개(1.2%), 2개(1.2%)로 월등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3.2에서는 3.1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사의 영한 번역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알아보겠다. 제시된 부사는 개수가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제시하겠다.

## 3.2 부사의 유형별 번역양상

### 3.2.1 시간부사

시간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의 27.3%에 이르며 총 10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각 단어들은 부사로써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아래는 각 부사가 ‘어떤 문장구성요소를 수식 하는가’에 의한 단어의 제시이다.

#### 1) 절을 수식하는 경우

시간부사 중 절을 수식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next, soon, eventually로 나타났다.

① next

next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한 번(2.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17) a. Next he found a polar fleece jacket he had left on the bed after dinner and struggled into it. (RD 100: 18)

b. 다음에 그는 자기가 저녁을 먹은 후에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방한용 폴라플리스천 재킷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그것을 꺼입었다. (RD 100: 19)

위의 (17a)의 ‘next’는 (17b)에서 ‘명사+조사’형태로 부사역할을 하는 ‘다음에’로 품사 전환되었다.

다음의 단어들은 영한 번역시 독립된 형태의 부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② soon

soon은 전체 시간부사 중 네 번(8.5%) 등장하였고 네 번 모두 아래와 같은 형태로 번역되었다.

(18) a. Soon they discovered another concrete slab two metres lower. (RD 100: 22)

b. 그들은 곧 2m아래에 또 다른 콘크리트판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RD 100: 23)

위 예문 (18a)의 ‘soon’은 뒤따르는 절을 수식하고 있고 (18b)에서 부사 ‘곧’으로 번역되었다.

③ eventually

eventually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한 번(2.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19) a. “You did all you could possibly do,” he said eventually.

(RD 100: 26)

b.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RD 100: 27)

위의 (19a)에서 앞의 절을 수식하고 있는 ‘eventually’는 (19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마침내’로 번역되었다.

2)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시간부사 중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뉜다.

A.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중에는 아래와 같이 영한 번역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는 경우와 생략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① ago

ago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한 번(2.1%) 출현하였고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20) a. Vesa’s parents divorced years ago. (RD 102: 82)

b. 베사의 부모는 몇 년 전에 이혼했다. (RD 102: 83)

위의 (20a)에서 동사 ‘divorced’를 수식하는 ‘ago’는 (20b)에서 ‘명사+조사<sup>5)</sup>’형태를 취해 부사역할을 하는 ‘~전에’로 품사 변환되었다.

다음은 생략된 채 번역된 경우이다.

## ② initially

initially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한 번(2.1%) 출현하였는데 아래 예문 (21b)에서와 같이 생략된 채 번역되었다.

(21) a. Dad left such big boots that I initially felt it could take at least a whole lifetime to fill them. (RD 102: 88)

b. 아버지가 너무나 큰 신발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Ø 내 발이 그 신발에 맞으려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RD 102: 89)

위 (21a)에서 동사 ‘felt’를 수식하고 있는 ‘initially’는 (21b)에서 전체 흐름상 생략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있었을 ‘처음에’란 말이 생략된 채 번역되었다.

다음은 시간부사 중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 B.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시간부사 중 동사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still’ 하나였다. still은 전체 시간부사에서 두 번(4.5%)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은 품사변화를 보였다.

---

5) 조사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나 부사, 어미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나타내어 주는 품사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22) a. I'm still not allowed to do my own laundry. (RD 102: 84)

b. 저는 아직도 제 빨래를 직접 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RD 102: 85)

위의 (22a)에서 동사구 '(a)m ... not allowed'를 수식하는 'still'은 (22b)에서 '부사+어미6)' 형태로 부사역할을 하는 '아직도'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 3)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경우

아래의 already, later, now, then은 문장구성요소 중 한 가지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 ① already

already는 전체 시간부사 중 두 번(4.2%) 출현하였고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절을 수식하거나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23) a. Already his hands and feet were numb. (RD 100: 14)

b. 벌써 손과 발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다. (RD 100: 15)

(24) a. Stuart's pulse, already over 100, went up to a worrying 150. (RD 100: 26)

b. 이미 100을 넘은 스튜어트의 맥박수는 위험한 150을 향해 가고 있었다. (RD 100: 27)

위의 예문 (23a)와 (24a)에 등장하는 'already'는 각각 (23b)에서는 절 'his

---

6) 어미란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먹다, 먹고, 먹으면'에서 '-다, -고, -으면'같은 것이다 (민중서림편집부, 2011).

hands and feet were numb’을, (24b)에서는 전치사구 ‘over 100’을 수식하고 있고 (23b)에서는 부사 ‘벌써7)’, (24b)에서는 부사 ‘이미8)’로 각각 번역되었는데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유의어이고 따라서 already는 절을 수식하든 전치사구를 수식하든 같은 형태로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later

later은 전체 시간부사 중 열 번(21.3%)출현하였고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절을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 (25) a. A split second **later**, an icy, reeking mixture of water and heating fuel rushed through gaps above Stuart’s head, filling the small space. (RD 100: 10)
- b. 곧 이어 물과 난방연료가 섞인 악취나는 차가운 액체가 스튜어트의 머리 위에 있는 틈을 통해 무섭게 흘러 들어와 좁은 공간을 채웠다. (RD 100: 11)
- (26) a. A few days **later**, Paul Featherstone came by to see him. (RD 100: 32)
- b. 며칠 후 폴 페더스톤이 그를 만나보러 왔다. (RD 100: 33)
- (27) a. Now, six hours **later**, it was still off limits. (RD 100: 12)
- b. 6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그 곳은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RD 100: 13)
- (28) a. ∅ **Later**, when the boss had his thirteenth birthday, the store staff gave him a purse of coins to take along on trips. (RD 102: 96)

7)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혹은 이미 오래 전에(국립국어연구원, 1999).

8) 이미: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국립국어연구원, 1999).

- b. 그후 베사가 30회 생일을 맞았을 때, 상점의 간부직원들은 그  
에게 여행시 가지고 다닐 동전 지갑을 선물했다. (RD 102: 97)

위의 예문 들은 ‘later’이 모두 절을 수식하는 경우인데, ‘later’앞에 어떤  
단어가 왔느냐에 따라 번역시 다양한 품사변화를 보였다. 예문 (25a),  
(26a), (27a)에서 각각 ‘A split second’, ‘A few days’, ‘six hours’를 수식  
하는 ‘later’은 (25b), (26b), (27b)에서 각각 부사 ‘이어’, 명사 ‘후’, 동사  
‘지났어도’로 번역되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이유는 수식해주는 대상  
이 ‘A split second’, ‘A few days’, ‘six hours’로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그 외에 (28a)의 later은 앞에 아무런 단어 없이 독자적으로 쓰였기 때문  
에 관형사<sup>9)</sup> ‘그-’를 붙여 명사구 ‘그후’로 번역되었다. 한편 이 중 (26b)와  
(28b)의 ‘후’와 ‘그후’는 실제 두 단어들 뒤에 각각 조사 ‘-에’가 붙어 부사  
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사‘-에’가 생략된 채 부사의 기능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later가 동사 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 (29) a. See you later, Sal. (RD 100: 32)  
b. 다음에 만납시다, 여보. (RD 100: 33)
- (30) a. I saw later that Vesa’s office is only three square metres  
in size. (RD 102: 76)  
b. 나중에 베사의 사무실에 가보니 크기가 고작 3제곱미터에 불  
과했다. (RD 102: 77)
- (31) a. His son Matti Keskinen later took over the store. (RD 102: 74)  
b. 아들 마티 케스키넨이 Ø 그 상점을 물려받았다. (RD 102: 75)

9) 관형사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  
며주는 품사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동사를 수식하는 later의 경우 위와 같이 ‘명사+조사’로의 품사변환을 보였다. 위 예문 (29b), (30b)에서 later은 각각 ‘다음에’와 ‘나중에’로 번역되었는데, ‘다음에’라는 단어는 명사 ‘다음’과 조사 ‘-에’가 합쳐진 말이고, ‘나중에’라는 말도 명사 ‘나중’과 조사 ‘-에’가 합쳐진 말이다. later가 동사구 ‘took over’을 수식하는 (31b)에서는 생략이 일어났는데 Ø표기가 있는 자리에 ‘나중에’ 혹은 ‘다음에’라는 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ter은 크게 절을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절을 수식하는 경우는 later앞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번역시 다양한 품사전환을 보였고,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엔 대부분이 ‘명사+조사’의 형태로 바뀌거나 혹은 생략되기도 했다.

### ③ now

now는 전체 시간부사 중 16개(34.0%)가 조사되었는데 시간부사 중 가장 많이 출현했다. now는 절을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now가 절을 수식하는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절속에 있는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

(32) a. Now, measured by any criterion, its economy is the best in the country. (RD 102: 92)

b.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모로 보나 이 고장의 경제는 핀란드에서 최상이다. (RD 102: 93)

위 예문 (32a)의 now는 뒤의 절을 수식하고 있는데 이 절의 시제는 (32a)

의 동사 'is'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이다. (32a)의 'now'는 (32b)에서 '명사+조사+보조사<sup>10)</sup>'의 형태인 '오늘날에는'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 형태로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한편 (32b)에서 (32a)에는 없던 단어 '그러나'가 첨가되었으므로 번역시 now가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now가 과거시제를 포함한 절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33) a. Now they heard a rumbling, rushing sound. (RD 100: 10)

b. 그때 우르르 하며 흘러가는 소리가 났다. (RD 100: 11)

(34) a. Now another torrent of water swamped him. (RD 100: 14)

b. ∅ 또다시 세찬 물줄기가 그를 덮쳤다. (RD 100: 15)

예문 (33a)와 (34b)의 now는 과거시제 속에서 '생동감'을 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번역할 때 한국어에서는 과거시제와 '지금'이란 단어가 같이 쓰이면 시제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없다. 따라서 now의 번역시 (33b)에서는 시제에 맞추어 '그때'라는 말로 의역되고 (34b)에서는 생략을 하였다.

다음은 now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35) a. Featherstone now crawled into the tunnel, pressing close to the crack. (RD 100: 22)

b. 이제 페더스톤이 터널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RD 100: 23)

(36) a. But the emaciated boy now shivering in the water was too sick even to smile. (RD 101<sup>11)</sup>: 12)

10) 보조사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11) Reader's Digest 101집

- b. 그러나 지금은 쇠약한 몸으로 물속에서 떨면서 웃음조차 지을 힘이 없어 보였다. (RD 101: 13)

위 예문 (35a)에서 동사 ‘crawled’를 수식하는 ‘now’는 (35b)에서 부사 ‘이제’로 번역되고 (36a)에서 분사구 ‘shivering in the water’을 수식하고 있는 ‘now’는 ‘명사+조사’인 ‘지금은’이란 단어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위에서는 시간부사 now에 대해 알아보았다. now는 절을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고 절을 수식하는 경우엔 절속에 들어있는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 그 번역 양상이 달라졌다.

다음은 시간부사에서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경우의 마지막 단어이다.

④ then

then은 전체 시간부사 중 5개(10.6%)였는데 아래 예문에서처럼 절을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 (37) a. ... then, in a process called “budding”, divides itself or produces a bud on its side to form an exact copy of its donor. (RD 100: 80)

- b. 그 다음 “분열”이라는 발아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폴립을 증식해낸다. (RD 100: 81)

- (38) a. Then the phone connection broke. (RD 100: 30)

- b. 다음 순간 전화연결이 끊겼다. (RD 100: 31)

- (39) a. His subordinates say he swears no more than once a month; but then the entire staff naps to attention. (RD 102: 78)

- b. 그가 혼시를 하는 일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정도로 드물지만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전직원들은 바짝 긴장하여 부동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부하 직원이 말한다. (RD 102:79)

위 예문의 then은 모두 앞에서 뒤의 절을 수식을 하는데 문장과 문장사이를 이어 접속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번역된다. (37a)와 (38a)에 있는 ‘then’은 (37b)에서 ‘관형사+명사’인 ‘그 다음’으로, (38b)에서 ‘명사+명사’인 ‘다음 순간’으로 각각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39a)의 ‘then’은 (39b)에서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이란 하나의 절 형태로 풀어서 번역되었다. 한편 ‘그 다음’과 ‘다음 순간’이란 말은 조사 ‘-에’가 붙여져서 부사처럼 쓰이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then이 동사를 수식한 경우와 분사구를 수식한 경우인데, 절을 수식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단어로 번역된 경우가 없었다.

- (40) a. Marie started towards him, then froze as Brandon shoved his fingers down his throat and vomited onto the grass. (RD 101: 6)

- b. 무얼 하나 다가가 본 마리는 Ø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브랜든이 손가락을 목구멍 속에 밀어 넣고 먹은 것을 풀밭에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RD 101: 6)

- (41) a. ... and he was exercising a lot—taking long bike rides, then jumping for half an hour on the trampoline and doing sit-ups while he watched TV. (RD 101: 8)

- b. 아이는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고 30분씩 트램폴린 위에서 뛰고 TV를 보면서도 윗몸일으키기 운동을 했다. (RD 101: 9)

위의 예(40a)의 then은 (40b)에서 생략된 채 번역되었다. (40a)에서는 동사가 두 개 출현했는데 이 중 처음 등장한 *started*는 (40b)에서 형용사구 ‘다가가 본’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뒤에 남아 있던 *froze*가 (40b)에서 유일한 동사 ‘얼어붙는 듯했다’로 번역되었는데 이 때문에 (40b)에서는 (40a)에 있던 2개의 동사를 순차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졌고 결국 이 둘을 이어주던 ‘then’을 생략한 채 번역하였다. 한편 (41a)에서 then은 (41b)에서 한국어 어미 ‘-고’로 번역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의하면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어미’라고 정의 된다. 이것은 영어 *then*의 정의가 ‘하나의 일이 끝이어 일어남’이란 것을 참고했을 때, ‘-고’는 동시적인 일을 지칭할 때, ‘then’은 일의 순차적인 면을 강조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미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hen*이 생략이 되는 경우든, 어미 ‘-고’로 번역되는 경우든 영한 번역시 ‘then’의 원래의 순차적인 어감보다 ‘동시적인’ 어감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시간을 나누는 개념이 덜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듯하다<sup>12)</sup>.

위에서는 시간부사 *then*의 여러 가지 번역 양상을 알아보았다. *then*은 절을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절을 수식하는 경우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잇기 때문에 접속사적 기능을 하여 그에 맞춘 의역이 많이 일어났다. 한편, 동사나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는 단어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거나 혹은 어미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시간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된 부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간부사는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

12) 양진성(2003)은 그의 연구에서 한국어가 고맥락적인 문화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표현이나 비언어적 단어가 발달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표현도 영어보다 한국어가 좀 더 두루뭉술하고 덜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었는데 위에서는 이것을 절을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경우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시간부사  
에서는 특히나 절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경우 앞 문장과 뒷문  
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적 기능을 하게 되어 번역시 다양한 형태로 품사가  
바뀌었다. 특히 시간부사에서는 조사를 이용한 품사변화가 많았다. 이어서  
시간부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방법부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 3.2.2 방법부사

방법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 중 20.2%에 이르며 총 19개의 단어로 나타  
났는데, 각 단어들은 부사로써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아  
래는 각 부사가 ‘어떤 문장구성요소를 수식하는가’에 의한 단어의 제시이다.

#### 1)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방법부사 중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fairly, generously,  
gently, heavily, quickly, quietly, rapidly, reluctantly, secretly, vigorously  
로 나타났는데 영한 번역시 품사변화가 있는 경우와 독립된 부사 형태로  
나타난 경우로 나뉘었다.

#### A. 번역시 품사변화가 있었던 경우

##### ① heavily

heavily는 전체 방법부사에서 한 번(3.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 (42) a. It was heavily indebted and publicly mentioned as a place  
ripe for bankruptcy. (RD 102: 90)

- b. 빛도 많고 파산이 임박한 곳이라고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었다. (RD 102: 91)

위 예문(42a)에서 과거분사 ‘indebted’를 수식하는 부사 ‘heavily’는 (42b)에서 동사 ‘많다’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이렇게 품사변환이 일어난 이유는 ‘indebted’라는 과거분사가 (42b)에서 ‘빚’이라는 주어명사로 품사 변환했기 때문이다.

② rapidly

rapidly도 전체 방법부사 중 한 번(3.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 (43) a. The pulse-oximeter now beeped rapidly. (RD 100: 30)  
b. 이제 맥박탐지기의 신호음이 빨라졌다. (RD 100: 31)

위 예문(43a)에서 동사 ‘beeped’를 수식하는 부사 ‘rapidly’는 (43b)에서 동사 ‘빨라졌다’로 번역되었다. 부사였던 단어가 번역시 동사로 바뀐 이유는 (43a)의 ‘beeped’라는 동사가 (43b)에서 ‘신호음’이라는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③ quickly

quickly는 전체 방법부사 중 세 번(9.4%) 등장하였고 세 번 모두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아래에서처럼 품사변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었다.

- (44) a. News of the survivor spread quickly, and ... (RD 102: 90)  
b. 생존자가 있다는 소식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RD 102: 91)

위 예문 (44a)의 ‘quickly’는 (44b)에서 ‘형용사+명사’형태인 ‘빠른 속도’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번역과정에서 원문에는 없던 ‘속도’라는 명사가 생겨났기 때문에 부사였던 ‘quickly’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빠른’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품사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45) a. We’re making the noise to get you out as quickly as possible. (RD 100: 26)

b. 우린 당신을 가능한 한 빨리 꺼내려고 소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RD 100: 27)

(46) a. But Brandon was too much in the grip of his illness and quickly learned how to purge secretly. (RD 101: 14)

b. 그러나 브랜든은 중증환자라서 몰래 토할 수 있는 법을 재빨리 알아냈다. (RD 101: 15)

위 예문 (45a)와 (46a)의 ‘quickly’는 각각 동사 ‘get’과 ‘learned’를 수식하며 (45b)와 (46b)에서 각각 ‘빨리’와 ‘재빨리’로 번역되었다. 특히 (46b)에서는 ‘빨리<sup>13)</sup>’라는 말 대신 ‘재빨리<sup>14)</sup>’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짧았던 것뿐만 아니라 화자의 행동이 기민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종의 ‘의미가 첨가된’ 번역이라 볼 수 있겠다.

## B. 일반적인 단일 부사로 번역된 경우

### ① fairly

13) 빨리: 걸리는 시간이 짧게(국립국어연구원, 1999).

14) 재빨리: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르게(국립국어연구원, 1999).

fairly는 전체 방법부사에서 한 번(3.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47) a. Vera treats us **fairly** ... (RD 102: 90)

b. 베사는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주며 ... (RD 102: 91)

위 예문(47a)에서 ‘treats’를 뒤에서 수식하는 부사 ‘fairly’는 (47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공정하게’로 번역되었다.

② generously

generously도 전체 방법부사에서 한 번(3.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48) a. The Keskinens **generously** share the fruits of their work with others. (RD 102: 92)

b. 케스키넨 집안은 사업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과 후하게 나누어 갖는다. (RD 102: 93)

위 예문(48a)에서 ‘share’을 수식하는 부사 ‘generously’는 (48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후하게’로 번역되었다.

③ gently

gently는 전체 방법 부사 중 세 번(9.4%) 출현하였는데 아래 예문에서처럼 크게 2가지 단어로 번역되었다.

(49) a. Stuart kissed her **gently**. (RD 100: 32)

b. 스튜어트는 아내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RD 100: 33)

(50) a. ... then gently pulled him feet-first until his head was beneath the manhole. (RD 100: 28)

b. ... 다음 천천히 발을 먼저 끌어내어 그의 머리가 구멍 밑에 이르게 했다. (RD 102: 29)

(49a)와 (50a)의 동사 ‘kissed’와 ‘pulled’를 수식하고 있는 ‘gently’는 (49b)와 (50b)에서 부사 ‘부드럽게’와 ‘천천히’로 각각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gently가 어떤 동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동사의 번역에 맞춰 부사의 번역도 달라진 것이다.

④ quietly

quietly는 전체 부사 중 한 번(3.1%) 출현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51) a. Deeply moved, the paramedic replied quietly, “Fire away.” (RD 100: 26)

b. 가슴이 뭉클해진 페터스턴이 조용히 대답했다. (RD 100: 27)

위 예문(51a)에서 동사 ‘replied’를 수식하는 부사 ‘quietly’는 (51b)에서 부사 ‘조용히’로 번역되었다.

⑤ reluctantly

reluctantly는 전체 부사 중 두 번(6.2%) 출현하였고 아래 예문과 같이 번역되었다.

(52) a. The controller reluctantly agreed ... (RD 100: 24)

b. 통제관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 (RD 100: 25)

위 예문(52a)에서 동사 ‘agreed’를 수식하는 부사 ‘reluctantly’는 (52b)에서 부사 ‘마지못해’로 번역되었다.

⑥ secretly

secretly는 전체 부사 중 한 번(3.1%) 출현하였고 아래 예문과 같이 번역되었다.

(53) a. But Brandon was too much in the grip of his illness  
and quickly learned how to purge secretly. (RD 101: 14)

b. 그러나 브랜든은 중증환자라서 몰래 토할 수 있는 법을 재빨리 알아냈다. (RD 101: 15)

위 예문(53a)에서 동사 ‘purge’를 수식하는 부사 ‘secretly’는 (53b)에서 부사 ‘몰래’로 번역되었다.

⑦ vigorously

vigorously는 전체 부사 중 한 번(3.1%) 나왔고 아래 예문에서처럼 번역되었다.

(54) a. He wiggled his toes vigorously. (RD 101: 14)

b. 그리고 발가락을 열심히 꼬물거렸다. (RD 101: 15)

위 예문(54a)에서 동사 ‘wiggled’를 수식하는 부사 ‘vigorously’는 (54b)에서 부사 ‘열심히’로 번역되었다. ‘vigorously’의 정의가 ‘많은 힘을 사용 하

거나 혹은 짧고 반복되는 동작에 사용 되는 경우’(Sinclair, 1992)인 것에 비해 ‘열심히’의 정의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국립국어연구원, 1999)인 것을 비교해 볼 때 ‘vigorously’는 힘의 세기에 초점을 맞춘 단어라면 ‘열심히’는 무언가를 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므로 의미 차이가 약간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방법부사 중 분사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ceremonically와 incessantly가 있었다.

### ① ceremonically

ceremonically는 전체 방법부사에서 한 번(3.1%) 출현하였는데 아래에서처럼 과거분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55) a. The landmark, ceremonically inaugurated in July, was one of last summer’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RD 102: 76)

b. 1999년 7월에 Ø 제막식이 거행된 이 기념물은 작년 여름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인기를 끌었다. (RD 102: 77)

위의 예문(55a)에서 분사구 ‘inaugurated in July’를 수식하고 있는 ‘ceremonically’는 (55b)에서 생략되어 나타났다. 이미 ‘inaugurated’란 단어 속에 ‘-식이 거행 된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② incessantly

incessantly도 전체 방법부사에서 한 번(3.1%) 출현하였고 아래에서처럼

‘의미상 주어’가 있는 분사구를 수식한다.

(56) a. ... and telephones ringing **incessantly**. (RD 102: 74)

b. ...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려대는 장면이었다. (RD 102: 75)

위 예문 (56a)에서 ‘telephones ringing’을 수식하는 ‘incessantly’는 (56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끊임없이’로 번역되었다.

3) 절을 수식하는 경우

방법부사 중 절을 수식하는 단어는 desperately가 있었는데, desperately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두 번(3.1%)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57) a. **Desperately**, Stuart heaved at the bedhead to no avail.  
(RD 100: 10)

b. 스튜어트는 결사적으로 침대머리를 들어올려 보려고 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RD 100: 11)

위 예문(57a)의 부사 ‘desperately’는 (57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결사적으로’로 번역되었다.

4)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방법부사 중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dangerously가 있었는데, dangerously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한 번(3.1%)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은 품사변화를 보였다.

(58) a. In just a few days, he lost more than nine pounds, his potassium level dropped dangerously low, and he was transferred to Wexham Park Hospital. (RD 101: 24)

b. 입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체중이 9파운드 빠지고 혈중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웨스햄 파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RD 101: 25)

위의 예문 (58a)의 부사 ‘dangerously’는 (58b)에서 형용사 ‘위험한’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dangerously low’라는 말을 번역할 때 원래는 없던 단어인 ‘수준’이라는 명사를 문맥상 첨가하면서 원래는 부사였던 단어를 형용사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다.

#### 5)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전체 방법부사 중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increasingly가 있었는데, increasingly는 전체 방법부사에서 한 번(3.1%)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은 품사변화를 보였다.

(59) a. Brandon’s heart and organs were increasingly at risk of failing from constant vomiting. (RD 101: 22)

b. 계속되는 구토로 브랜든의 심장과 다른 기관들의 기능부전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RD 101: 23)

위 예문(59a)에서 부사인 ‘increasingly’는 (59b)에서 동사인 ‘커지고’라는 말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59a)의 전치사구 ‘at risk of failing from constant vomiting’이 (59b)에서 ‘다른 기관들의

기능부전 위험’이라는 주어명사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6) 여러가지를 수식하는 경우

아래의 immediately, slowly, suddenly는 문장구성요소 중 한 가지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① immediately

immediately는 전체 시간부사 중 세 번(9.4%)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절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60) a. Stuart's pulse immediately dropped and his respiration slowed. (RD 100: 26)

b. 스튜어트의 맥박수가 즉시 떨어졌고 호흡도 느려졌다. (RD 100: 27)

(61) a. He immediately informed the staff. (RD 102: 98)

b. 그는 즉각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RD 102: 99)

위의 예문들은 immediate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위 예문의 ‘immediately’는 2가지로 번역되는데 (60b)에서는 명사 ‘즉시’로, (61b)에서는 부사 ‘즉각’으로 번역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의하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로, ‘즉각’은 ‘당장에 곧’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통해 이 둘은 품사만 다른 유의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은 immediately가 절을 수식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위의 예문 (60), (61)과 비교하겠다.

(62) a. Immediately, he ran to the site controller. (RD 100: 22)

b. 페더스턴은 곧장 현장통제관에게로 달려갔다. (RD 100: 23)

위 예문 (62a)의 ‘immediately’는 (62a)에서 부사 ‘곧장’으로 번역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의하면 ‘곧장’은 ‘곧이어 바로’로 정의되는데 ‘immediately’가 동사를 수식했던 (60b), (61b)예문의 ‘즉시’, ‘즉각’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이 ‘시간의 짧은 찰나’ 그 자체를 얘기하는 반면에 (62b)의 ‘곧장’은 좀 더 ‘순차적인’ 어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immediately가 문두에서 절을 수식하면서 앞의 문장과 관계를 밝히는 접속사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suddenly

suddenly는 전체 부사 중 일곱 번 출현하였고 이것은 전체 방법부사 중 21.8%에 이르는 비율이다.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suddenly’는 절을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63) a. Suddenly an alarm blasted three times. (RD 101: 20)

b. 그러던 중 갑자기 경고사이렌이 세 번 울렸다. (RD 101: 21)

위 예문 (63a)에서 뒤의 절을 수식하는 부사 ‘suddenly’는 (63b)에서 부사 ‘갑자기’ 번역되었다.

다음은 ‘sudden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64) a. ... about 18 percent of patients with anorexia nervosa die of the disorder—half by suicide and the other half suddenly, usually due to irregularities of their heartbeat. (RD 101: 34)

- b. ...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18%가 사망하는데 반은 자살하고 나머지 반은 불규칙한 심박동으로 급사한다고 한다. (RD 101: 34)

위 예문 (64a)의 ‘suddenly’는 앞 단어 ‘half’와의 사이에 생략된 동사 ‘die’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suddenly’는 (64b)에서 접두사<sup>15)</sup> ‘급-’으로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좀 더 많은 사례를 살펴봐야겠지만 위에서 suddenly는 절을 수식하는 경우에 독립된 형태의 부사로 번역되고,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동사와 결합하게 되는 어미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 ③ slowly

slowly는 전체 부사 중 두 번(6.2%) 출현하였고 아래 예문과 같이 동사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 (65) a. We have to take this slowly. (RD 100: 30)

- b. 마음을 진정시키게. 침착해야 하네. (RD 100: 31)

- (66) a. The tube feeds were slowly withdrawn. (RD 101: 30)

- b. 튜브로 공급되는 음식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 (RD 101: 31)

위 예문 (65a)와 (66a)에서 각각 동사 ‘take’와 동사구 ‘were ... withdrawn’을 수식하는 부사 ‘slowly’는 (65b)에서 완전히 다르게 의역되었고 이것은 문맥상 문장의미의 강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6b)에서는 독립된 형태의 부사 ‘점점’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방법부사의 번역양상에 대하여

15) 접두사란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써 어근이나 단어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면밀히 알아보았다. 방법부사는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었는데 위에서는 이것을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분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절을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7가지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특히 방법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각각의 단어는 독립된 부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간혹 명사(immediately가 ‘즉시’로 번역되는 경우)나 형용사(quickly, dangerously가 ‘빠른’, ‘위험한’으로 번역되는 경우), 혹은 동사(heavily, rapidly가 ‘많다’, ‘빨라졌다’로 번역되는 경우)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를 첨가하기도 하였으며 slowly처럼 완전한 의역이 일어나 하나의 문장을 첨가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계속해서 방법부사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던 정도부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 3.2.3 정도부사

정도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 중 18.0%의 비중을 이루며 총 17개의 단어로 나타났는데, 각 단어들은 부사로써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아래는 각 부사가 ‘어떤 문장구성요소를 수식 하는가’에 의한 단어의 제시이다.

#### 1)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부사 중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badly, expecially, extremely, most, too가 있었다.

##### ① badly

bad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등장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품

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67) a. ... his idea of an Elvis museum to the store a few years ago went badly wrong when he ignored my advice and trusted the wrong person. (RD 102: 90)

b. ... 몇 년 전 엘비스 박물관을 연계하려 했던 그의 아이디어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을 믿다가 큰 낭패를 보았죠. (RD 102: 91)

위의 예문 (67a)에서 형용사 ‘wrong’을 수식하는 부사 ‘badly’는 (67b)에서 형용사 ‘큰’으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이것은 badly가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wrong’이 ‘낭패’라는 명사로 번역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② especially

especial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했는데 다음과 같이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

(68) a. There is always an especially weighty reason when he puts on a tie or swears. (RD 102: 78)

b. 그분이 넥타이를 매거나 훈시를 할 때는 항상 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RD 102: 79)

위의 예문 (68a)에서 ‘weighty’를 수식하는 부사 ‘especially’는 (68b)에서 생략된 채로 나타났다. 위 (68b)의 Ø표기가 있는 자리에 ‘특히나’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으나 실제로 이 단어를 나타낸다면 전체 문장이 어색해지

므로 생략하여 나타낸 듯하다.

③ extremely

extreme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69) a. Returning to Huntercombe, Brandon was extremely violent, and there were times the staff had to hold him down. (RD 101: 28)

b. 헌터콤 병원으로 되돌아온 브랜든은 아주 거칠어졌다. 그를 말리기 위해 의료진까지 동원되어야 할 정도였다. (RD 102: 27)

위의 예문 (69a)에서 형용사 ‘violent’를 수식하는 부사 ‘extremely’는 (69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아주’로 번역되었다. 이 예문의 경우 (69a)에서는 한 문장이었던 것이 (69b)에선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번역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④ most

most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세 번(10.3%)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로 나타났다.

(70) a. The landmark, ceremonically inaugurated in July, was one of last summer’s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RD 102: 76)

b. 2000년 제막식이 거행된 이 기념물은 작년 여름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인기를 끌었다. (RD 102: 77)

(71) a. It was certainly the most important point in my life. (RD 102: 86)

b.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점이었습니다. (RD 102: 87)

위의 예문 (70a)와 (71a)의 ‘most’는 모두 최상급을 나타내 주는 부사로써 뒤따르는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각각 (70b)와 (71b)에서 유의어인 ‘대단히’와 ‘가장’으로 번역되고 있다.

다음은 most가 생략되는 경우의 예문이다.

(72) a. ... Turri has become one of finland’s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RD 102: 82)

b. 그 결과, 투리 마을은 핀란드의 Ø 유명 관광지의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RD 102: 83)

위 (72a)에서 뒤따르는 형용사 ‘popular’을 수식하는 최상급 부사 ‘most’는 (72b)에서 생략된 채로 나타났다.

⑤ too

정도부사 too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다섯 번(17.2%) 출현했는데 이것은 정도부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too는 아래와 같이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가 있다.

(73) a. I must too far. (RD 102: 86)

b. 내가 너무 똥똥해서 그럴 거야. (RD 102: 87)

위의 예문 (73a)에서 형용사 ‘far’을 수식하는 부사 ‘too’는 (73b)에서 독립

된 부사 형태인 ‘너무’로 번역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예문은 서로 다른 방식의 생략을 보여준다.

(74) a. He always finds times for others, and nothing is too minor for him to bother listening. (RD 102: 80)

b. 그는 항상 시간을 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 사소한 일에도 귀를 기울여 줍니다. (RD 102: 81)

(75) a. But Brandon was too much in the grip of his illness and quickly learned how to purge secretly. (RD 101: 14)

b. 그러나 브랜든은 ∅ 중증환자라서 몰래 토할 수 있는 법을 재빨리 알아냈다. (RD 101: 15)

위의 (74a)와 (75a)의 ‘too’는 둘 다 (74b)와 (75b)에서 생략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둘의 생략 모습은 조금 다른데, 예문(74)에서는 일반적인 생략이 일어난 반면에 예문(75a)의 ‘too much in the grip of his illness’라는 어구는 (75b)에서 ‘중증환자’라는 단어로 바뀌어 나타났다. 여기서는 ‘too’라는 말이 생략되어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too’라는 단어가 없어도 ‘중증환자’라고 그대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방법부사 중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단순히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뉜다.

### A.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부사 중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completely, deeply,

hardly, partly, really가 있었다.

① completely

completely는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76) a. It completely changed my life. (RD 102: 86)

b. 그 결과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RD 102: 87)

위의 예문 (76a)에서 동사 ‘changed’를 수식하는 부사 ‘completely’는 (76b)에서 부사 ‘완전히’로 번역되었다.

② deeply

deeply도 정도부사로써 한 번(3.5%)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77) a. Deeply moved, the paramedic replied quietly, "Fire away."  
(RD 100: 26)

b. 가슴이 몹스해진 페터스틴이 조용히 대답했다. “해보세요.”  
(RD 100: 27)

위의 예문 (77a)에서 동사 ‘moved’를 수식하는 ‘deeply’는 (77b)에서 생략되면서 원래 있던 동사 ‘moved’에 더해져 의미 강화를 일으켰다. Sinclair(1992)에 따르면 동사 ‘move’는 사전적 의미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슬픔을 느끼거나 동정심을 느끼는 것.’으로 한 마디로 ‘감동하다<sup>16)</sup>’ 정도로 정의 되는데 이에 비해 ‘몹스하다’라는

---

16) 감동하다: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현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슬픔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 북받치어 가슴이 꽉 차는 듯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뭉클하다’라는 표현은 ‘감동받다’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다.

③ hardly

hard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78) a. Vesa has hardly any leisure time. (RD 101: 82)

b. 베사에게는 한가한 시간인 거의 없다. (RD 102: 83)

위의 예문 (78a)에서 앞의 동사 ‘has’를 수식하는 ‘hardly’는 (78b)에서 ‘부사+동사’형태의 ‘거의 없-’으로 품사가 바뀐 채 번역되었다.

④ partly

partly는 전체 시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79) a. Soon his head was partly out of the manhole. (RD 100: 26)

b. 곧 그의 머리 Ø 가 구멍 밖으로 나왔다. (RD 100: 27)

위의 예문 (79a)의 ‘partly’는 (79b)에서 생략된 채 나타났다. (79a)와 (79b)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 볼 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9a)의 경우 ‘머리의 일부가’ 구멍 밖으로 나왔다고 표현하여 머리의 끝부분부터 서서히 구멍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진행되는 일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음을 전해준다. 이에 반해 (79b)에서는 단순히 ‘머리가’ 구멍 밖으로 나왔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는 일에 대한

긴박감이나 진행상황을 느낄 수 없다. 다만 머리 자체가 몸의 일부분이므로 번역시 생략한 것으로 생각된다.

⑤ really

real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80) a. I can't really say. (RD 102: 100)

b.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RD 102: 101)

위의 예문 (80a)에서 동사 'say'를 수식하는 부사 'really'는 (80b)에서 부사 '잘'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잘'이란 '자세하고 정확하게'(국립국어연구원, 1999)란 의미로 (80b)의 의미는 '무언가를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것이다. 문장 앞에 '글쎄'라는 감탄사를 첨가하여 자신의 확신의 정도가 낮음을 재차 알리고 있다.

다음은 정도부사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B.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부사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well과 publicly가 있었다.

① well

well은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했다. 아래 예문에서 'well'은 전체 절을 수식하는 경우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81b)의 번역에 맞추어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81) a. The lesson has gone well. (RD 102: 80)

b.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잘 지켜지고 있다. (RD 102: 81)

위의 예문 (81a)에서 동사구 ‘has gone’을 수식하는 부사 ‘well’은 (81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잘’로 번역되었다.

② publicly

publicly도 전체에서 한 번(3.5%) 출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82) a. It was heavily indebted and publicly mentioned as a place ripe for bankruptcy. (RD 102: 92)

b. 빚도 많고 파산이 임박한 곳이라고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었다. (RD 102: 93)

위의 예문 (82a)에서 동사구 ‘was ... mentioned’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publicly’는 (82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공공연히’로 번역되었다.

3)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부사 중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immediately와 practically가 있었다.

① immediately

immediately는 전체에서 네 번 출현하는데 이 중 3개는 방법부사에 속했고 이미 3.2.2에서 언급하였다. 나머지 하나가 정도부사에 속하는데 이는 전체 정도부사 중 3.5%에 속하는 비율이고 아래와 같이 전치사구를 수식한다.

(83) a. Finally, after cutting through the slab immediately above Stuart and ... (RD 100: 26)

b. 구조대가 마침내 스튜어트 바로 위의 콘크리트판을 잘라내고 ... (RD 100: 27)

위의 예문 (83a)에서 전치사구 ‘above Stuart’를 수식하는 ‘immediately’는 (83b)에서 부사 ‘바로’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라는 의미인데, 3.2.2에서 언급된 방법부사로써의 immediately가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의미에 가까운 반면에 정도부사로써의 immediately는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는걸 알 수 있다.

② practically

practical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84) a. In 1955 he opened a little village shop in Tuuri, practically in the middle of nowhere. (RD 102: 74)

b. 1955년 그는 산간벽지나 다름없는 투리에 자그마한 상점을 차렸다. (RD 102: 75)

위의 예문 (84a)에서 전치사구 ‘in the middle of nowhere’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 ‘practically’는 (84b)에서 ‘~나 다름없는’이라는 형용사로 품사가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4)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부사 중 수량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nearly가 있었는데, near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세 번(10.3%)출현하였다. 이 단어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번역되었다.

(85) a. By the end of June, Brandon had gained nearly nine pounds. (RD 101: 30)

b. 6월 말이 되자 브랜든은 거의 9파운드나 늘었다. (RD 101: 31)

(86) a. The Werrys had been battling anorexia for nearly two years when ... (RD 102: 82)

b.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는 병마와 싸움이 시작된 지 2년이 다되어가는 어느 날 ... (RD 102: 83)

(87) a. It is an old cow byre hand-built with local stone nearly a century ago. (RD 102: 76)

b. 이 건물은 근 1세기 전 이 고장 돌을 사용해서 지은 옛 외양간이다. (RD 102: 77)

위의 예문 (85a), (86a), (87a)에 있는 ‘nearly’는 (85b), (86b), (87b)에서 각각 수량사 ‘nine’, ‘two’, ‘a century’를 수식하고 있는 데 이 단어들은 (85b), (86b)에서 부사 ‘거의’와 ‘다’로 번역되었고, (87b)에서는 관형사 ‘근’으로 품사 변환하여 번역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거의<sup>17)</sup>’, ‘다<sup>18)</sup>’, ‘근<sup>19)</sup>’은 모두 유의어이다.

17)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국립국어연구원, 1999).

18) 다: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국립국어연구원, 1999).

19) 근: 그 수량에 거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말(국립국어연구원, 1999).

5) 절을 수식하는 경우

정도부사 중 절을 수식하는 단어는 actually가 있었는데, actually는 전체 정도부사에서 한 번(3.5%)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88) a. But who is he actually? (RD 102: 74)

b. 그는 과연 어떤 인물 일까? (RD 102: 75)

위의 예문 (88a)에서 앞 절을 수식하는 부사 ‘actually’는 (88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과연’으로 번역되었다.

6)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경우

아래의 almost와 so는 문장구성요소 중 한 가지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① almost

almost는 정도부사에서 두 번(7.0%) 등장하는데 아래에서처럼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89) a. Brandon was almost skeletal, and he was pale and waxy-looking. (RD 101: 12)

b. 브랜든은 거의 뼈만 남아 있었다. (RD 101: 13)

위의 예문(89a)에서 형용사 ‘skeletal’을 수식하는 부사 ‘almost’는 (89b)에서 부사 ‘거의’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almost가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90) a. Brandon was almost 13 and weighed just 75 pounds. (RD 101: 20)

b. 13살이 다된 브랜드는 체중이 75파운드 밖에 나가지 않았다.  
(RD 101: 21)

위의 예문(90a)에서 수량사 ‘13’을 수식하는 부사 ‘almost’는 (90b)에서 부사 ‘다<sup>20)</sup>’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예문 (89b)의 ‘거의<sup>21)</sup>’라는 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정의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유의어이고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쓸 수 있다.

② so

정도부사 so는 전체에서 세 번(10.3%) 출현하는데 아래와 같이 분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91) a. ... an event so astonishing it has been described by scientists as “biological magic.” (RD 100: 78)

b.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다 보니 과학자들은 “생명의 마술”이라고 말해 왔다. (RD 100: 79)

(92) a. Everyone knows that, but so regretfully few understand it. (RD 102: 100)

b. 이는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지만 ∅ 유감스럽게도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RD 102: 101)

---

20) 다: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부사(국립국어연구원, 1999).

21)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국립국어연구원, 1999).

위의 예문 (91a)에서 분사 ‘astonishing’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 ‘so’는 (91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너무도’로 번역되었고, (92a)에서 부사 ‘regretfully’를 수식하는 부사 ‘so’는 (92b)에서 생략되어 나타났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정도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도부사는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었는데 위에서는 이것을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절을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여러 가지를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8가지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정도부사에서는 특히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각의 단어는 독립된 부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형용사(badly, practically의 경우)나 관형사(nearly의 경우), 동사(hardly의 경우)로 품사전환이 일어나기도 했고 생략(partly의 경우)이 되면서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서 정도부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빈도부사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이제부터 나오는 부사유형의 조사된 개수는 확연히 줄어든다.

### 3.2.4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의 9.3%에 이르며 총 7개의 단어로 나타났는데, 각 단어들은 부사로써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아래는 각 부사가 어떤 문장구성요소를 수식하는가에 의한 단어의 제시이다.

#### 1)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빈도부사 중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A.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normally, rarely, sometimes로 나타났다.

① normally

normally는 전체 빈도부사에서 한 번(6.7%)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93) a. Bulimics normally purge after an eating binge, but Brandon did it even on an empty stomach. (RD 101: 10)

b. 대식증 환자는 정신없이 먹고 난 후에 토해내는 것이 보통인데, 브랜든같은 신경성 식욕부진환자는 속이 비었는데도 토한다. (RD 101: 11)

위의 예문 (93a)에서 앞에 있는 동사 ‘purge’를 수식하는 부사 ‘normally’는 (93b)에서 동사 ‘보통인데’로 품사가 전환되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의 이유는 (93a)의 ‘purge’라는 동사가 ‘토해내다’로 번역되었어야 하는데 (93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해내는 것’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rarely

rarely도 전체 빈도부사에서 한 번(6.7%)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품사 변환하여 번역되었다.

(94) a. He has the husky voice of a pub regular, although he rarely visits one. (RD 100: 32)

- b. 그는 술집에 드나드는 일이 거의 없지만 술집 단골들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RD 100: 33)

위의 예문 (94a)에서 뒤따르는 동사 ‘visits’를 수식하는 부사 ‘rarely’는 (94b)에서 부사 ‘거의’와 동사 ‘없다’가 합쳐진 ‘거의 없-’의 형태로 품사가 바뀐 채 번역되었다. rarely는 3.2.3에서 언급했던 ‘hardly’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번역시 ‘거의 없-’의 형태를 똑같이 가지지만 문맥에 따라 정도부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빈도부사로 번역되기도 한다.

③ sometimes

sometimes도 전체 빈도부사에서 한 번(6.7%)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 (95) a. Vesa admits that he sometimes feels a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y for his people. (RD 102: 84)  
b. 베사는 때때로 주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인한다. (RD 102: 85)

위의 예문 (95a)의 부사 ‘sometimes’는 (95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때때로’로 번역되었다.

B.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는 constantly 하나였는데 constantly는 전체 빈도부사에서 두 번(13.3%) 출현하였고 모두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96) a. He puts himself down **constantly**. (RD 102: 92)

b.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요. (RD 102: 93)

위의 예문 (96a)에서 동사구 ‘puts ... down’을 수식하는 부사 ‘constantly’는 (96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끊임없이’로 번역되었다.

### C. 동사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always는 전체 빈도부사에서 여섯 번(40.0%)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생략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97) a. Not even Vesa always succeeds. (RD 102: 90)

b. 베사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RD 102: 91)

(98) a. “Always!” (RD 102: 32)

b. “영원히!” (RD 102: 33)

(99) a. “Part of her will always be with me,” he says. (RD 100: 32)

b. “샬리의 일부는 늘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는 말한다.  
(RD 100: 33)

(100) a. Brandon had always been a high-energy kid, but now Marie knew something was wrong. (RD 101: 8)

b. 브랜든은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지만 이제 마리는 아이가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RD 101: 9)

위의 (97a), (98a), (99a), (100a)의 ‘always’는 (97b), (98b), (99b), (100b)에서 동사 ‘succeeds’, 생략된 동사 ‘be’, 동사구 ‘will ~ be’와 ‘had ~ been’

을 각각 수식하고 있는데, (97b), (98b), (99b), (100b)에서 부사 ‘항상<sup>22)</sup>’, ‘영원히<sup>23)</sup>’, ‘늘<sup>24)</sup>’, ‘언제나<sup>25)</sup>’로 각기 번역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이 네 개의 단어는 유의어로서 혼용하여 쓸 수 있다.

## 2) 절을 수식하는 경우

빈도부사 중 절을 수식하는 단어는 often이 있었는데, often은 전체 빈도부사에서 한 번(6.7%)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101) a. And often, that's enough. (RD 100: 32)

b. 그러다 보면 가끔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RD 100: 33)

위의 예문 (101a)에서 뒤따르는 절을 수식하는 부사 ‘often’은 (101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가끔’으로 번역되었다.

## 3)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빈도부사 중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단어는 usually가 있었는데, usually는 전체 빈도부사에서 세 번(20.0%)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번역이 되는 경우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102) a. ... usually within 24 hours. (RD 100: 20)

b. ... 대개 24시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 (RD 100: 19)

위의 예문 (102a)에서 전치사구 ‘within 24 hours’를 수식하는 부사

22)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국립국어연구원, 1999).

23)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국립국어연구원, 1999).

24) 늘: 계속하여 언제나(국립국어연구원, 1999).

25) 언제나: 때에 따라 달라짐이 없이 항상(국립국어연구원, 1999).

‘usually’는 (102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대개’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usually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103) a. ... about 18 percent of patients with anorexia nervosa die of the disorder—half by suicide and the other half suddenly, usually due to irregularities of their heartbeat.

(RD 101: 34)

b. ...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18%가 사망하는데 반은 자살하고 나머지 반은 Ø 불규칙한 심박동으로 급사한다고 한다.

(RD 101: 34)

위의 예문 (103a)에서 복합전치사구 ‘due to’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usually’는 (103b)에서 생략된 채 번역되었다. Ø표기가 있는 자리에 이 단어가 문맥상 필요하지 않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빈도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빈도부사는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었는데 위에서는 이것을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절을 수식하는 경우, 전치사를 수식하는 경우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빈도부사는 번역시 대부분이 그에 상응하는 부사로 변화하였지만 간혹 동사(normally, rarely의 경우)로 품사 변환하거나 생략(usually의 경우)되기도 했다.

### 3.2.5 제한부사

제한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 중 8.1%의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과 같이 두 개 단어 only와 just로 나타났다.

1) only

only는 전체 제한부사 중 10번(76.9%)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sup>26)</sup>,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접속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따라 번역 양상이 달라졌다.

(104) a. ... there is room for only one visitor at a time to sit on a wooden beam in the shabby windowless closet. (RD 102: 76)

b. 창문도 없는 초라한 방에는 주인 이외에 겨우 한 사람의 방문객이 나무 걸상에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다. (RD 102: 77)

(105) a. I saw later that Vesa's office is only three square metres in size. (RD 102: 76)

b. 나중에 베사의 사무실에 가보니 크기가 고작 3제곱미터에 불과 했다. (RD 102: 77)

(106) a. Tuuri has only 500 inhabitants. (RD 102: 74)

b. ... 투리 마을의 주민이 불과 500명에 지나지 않는다. (RD 102: 75)

(107) a. Arriving there on April 9, weighing only 83 pounds, Brandon took his tattered teddy bear and his CD player upstairs and tacked a huge Canadian flag above his bed. (RD 101: 24)

b. 4월 9일 헌터콧 병원에 도착한 브랜든은 체중이 Ø 83파운드였다.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곰인형과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층으로 올라간 브랜든은 자기 침대 위쪽에 커다란

26) 학자에 따라 even, only, very, eventually 등과 같은 몇몇의 부사는 명사도 수식한다고 정의하는데, 이형필(2003)은 그의 연구에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이외에 다른 품사도 수식할 수 있으나 이것은 형태상으로만 그렇게 분석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능면이나 의미면에서는 다른 품사로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본다.

캐나다 국기를 달았다. (RD 101: 25)

위의 예문 (104a), (105a), (106a), (107a)의 ‘only’는 (104b), (105b), (106b), (107b)에서 수량사 ‘one’, ‘three’, ‘500’, ‘83’을 각각 수식하고 있고 독립된 형태의 부사 ‘겨우<sup>27)</sup>’, ‘고작<sup>28)</sup>’, ‘불과<sup>29)</sup>’로 번역되거나 (107b)에서처럼 생략되기도 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이 단어들이 유의어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only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108) a. ... and only his closest friends are allowed to see it. (RD 102: 80)

b. ... 며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만 집을 보여주고 있다. (RD 102: 81)

(109) a. There, doctors were astonished to discover that he suffered only frostbite, dehydration, superficial cuts and hypothermia. (RD 102: 76)

b. 거기서 의사들은 그가 동상과 탈수증, 경미한 찰과상과 저체온 외에는 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RD 102: 77)

위 예문 (108a)와 (109a)에서 각각 명사구 ‘his closest friends’와 ‘frostbite, dehydration, superficial cuts and hypothermia’를 수식하고 있는 ‘only’는 (108b)와 (109a)에서 조사 ‘-만’과 ‘~외에는...없다’로 풀어서 번역되었는데, 실제로 이 둘의 의미는 같다. 특히 (109b)의 경우, 조사 ‘-만 (있었다)’의 긍정적 표현으로 짧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을 의존명사<sup>30)</sup> ‘외-’와 조사 ‘-에는’이 합쳐진 ‘외에는’이란 말에 부정동사 ‘없다’를 첨가하

27) 겨우: 기껏해야 고작(국립국어연구원, 1999).

28) 고작: 아무리 좋고 크게 평가하려 하여도 별것 아님(국립국어연구원, 1999).

29) 불과: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국립국어연구원, 1999).

30) 의존명사란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뜻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여 나타냈다.

다음은 on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110) a. You can only do your best. (RD 100: 32)

b.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RD 100: 33)

위 예문 (110a)에서 동사 ‘do’를 수식하는 ‘only’는 (110b)에서 의존명사 ‘-뿐’으로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다음은 only가 접속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111) a. One of the pupils, a ten-year-old boy, noticed only after he had passed through the checkout that he had received a radio-controlled car too cheap by mistake. (RD 102: 98)

b. 그 중 열 살짜리 한 사내아이는 계산대를 막 통과한 후에 자기가 무선 조종 자동차를 계산착오로 너무 싸게 샀음을 알았다. (RD 102: 99)

위의 (111a)에서 뒤따르는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부사 ‘only’는 (111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막’으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 범위 내 빈도부사에서 빈번히 등장한 only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only는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접속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엔 대부분이 독립된 부사로 번역되거나 생략이 되었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엔 수식하는 명사를 한정시키는 어휘가 나왔으며 그 외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의존명사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기도 했다.

2) just

just는 전체 제한부사 중 세 번(23.0%)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112) a. “Paris has its Eiffel Tower and New York its Statue of Liberty,” says husky-voiced Vesa, who has just arrived.  
(RD 102: 76)

b.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요.” 현장에 딱 도착한 베사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RD 102: 77)

(113) a. “When he achieves something, the credit is due to all—not just to him alone.” (RD 102: 90)

b. “베사사장이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 공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RD 102: 91)

(114) a. It was a week before Christmas; Brandon was almost 13 and weighed just 75 pounds. (RD 101: 20)

b. 13살이 거의 다된 브랜든은 체중이 75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다. (RD 101: 21)

위의 (112a), (113a), (114a)에서 각각 동사구 ‘has ... arrived’, 전치사구 ‘to him alone’, 수량사 ‘75’를 수식하는 ‘just’는 (112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딱’으로 번역되었고, (113b)와 (114b)에서 각각 조사 ‘-만이’와 ‘-밖에’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의하면 조사 ‘-만이<sup>31)</sup>’와 ‘-밖에<sup>32)</sup>’는 유의어인데 특히 부정극어 ‘-밖에’는 단어 자체에

31) -만이: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국립국어연구원, 1999).

32)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국립국어연구원, 1999).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형과 함께 쓰이면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장은희, 2011).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빈도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빈도부사는 only와 just의 두 가지 부사로만 나타났고 only는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접속사를 수식하는 경우의 4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었는데 특히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 독립된 부사형태로 번역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나 의존명사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된 경우가 있었고 생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just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었는데 이 역시도 독립된 형태의 부사로 번역되거나 조사로 품사 변환되어 번역되었다.

### 3.2.6 추가부사

추가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 중 13개(8.1%)였고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 1) also

also는 전체 추가부사에서 네 번(30.8%) 출현하는데 아래와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75.0%)와 전치사구(25.0%)를 수식하는 경우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

- (115) a. He also rewards his subordinates by taking them to the theatre and arranging beach parties and karaoke evenings.  
(RD 102: 90)

- b. 그분은 또한 부하직원들을 극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해변의 파티나 노래방 잔치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직원을 격려해줍니다. (RD 102: 91)

(116) a. Also in the restaurant ... (RD 102: 82)

- b. 또 레스토랑에는 ... (RD 102: 83)

위의 예문 (115a)에서 동사 ‘rewards’를 수식하는 부사 ‘also’는 (115b)에서 접속부사 ‘또한’으로 번역되었는데 동사를 수식하는 세 번의 경우 모두 접속의 기능을 하는 ‘또한’이나 ‘또’로 번역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116a)에서 전치사 ‘in the restaurant’를 수식하는 ‘also’가 (116b)에서 단순한 부사 기능을 하는 ‘또’로 번역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문장을 잇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부사 ‘또’로 번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even

even은 전체 추가부사에서 일곱 번(53.8%) 등장하는데 아래와 같이 대부분이 ‘조사’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붙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문장성분을 수식하게 된다. even은 아래와 같이 ‘-도’로 번역되는 경우와 ‘-조차’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117) a. Even when he is doing his daily jog he takes care of his many business affairs with a phone in his fist. (RD 102: 82)

- b. 매일 조깅을 할 때도 그는 손에 쥔 핸드폰으로 수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RD 102: 83)

(118) a. Bulimics normally purge after an eating binge, but Brandon did it even on an empty stomach. (RD 101: 10)

- b. 대식증 환자는 정신없이 먹고 난 후에 토해내는 것이 보통인데 브랜든 같은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는 속이 비었는데도 토한다. (RD 101: 12)

위 예문 (117a)에서 ‘even’은 뒤따르는 절을 수식하고 있고, (118b)에서 ‘even’은 전치사구 ‘on an empty stomach’을 수식하고 있다. 위의 예를 통해 절을 수식할 때나 전치사구를 수식할 때 모두 ‘-도’로 번역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even이 조사 ‘~조차’로 번역된 경우인데 다양한 문장성분을 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 (119) a. He has never indulged himself in the luxury of even a new car. (RD 102: 92)  
b. 하다못해 새 차를 타는 일조차 없다. (RD 102: 93)
- (120) a. For a while he wondered why the girls at his school never even glanced his way. (RD 102: 86)  
b. 한동안 그는 어째서 여학생들이 자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RD 102: 87)
- (121) a. But the emaciated boy now shivering in the water was too sick even to smile. (RD 101: 12)  
b. 그러나 지금은 쇠약한 몸으로 물속에서 떨면서 웃음조차 지을 힘이 없어 보였다. (RD 101: 13)

위의 예문 (119a), (120a), (121a)에서 각각 명사구 ‘a new car’, 동사 ‘glanced’, to 부정사 ‘to smile’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 even은 예문 (119b), (120b), (121b)에서 모두 조사 ‘~조차’로 번역되었다.

### 3) too

too는 전체 추가부사에서 네 번(30.8%) 출현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절을 수식했지만 번역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122) a. It too is a major magnet. (RD 102: 82)

b.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RD 102: 83)

(123) a. He wished he would die too. (RD 100: 12)

b. 그는 자기도 어서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길 간절히 원했다.

(RD 100: 13)

위의 예문 (122a)와 (123a)의 부사 ‘too’는 (122b)와 (123b)에서 각각 대명사 ‘It’과 ‘앞의 절’을 수식하고 있는데 각각 조사 ‘-도’와 부사 ‘역시’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관용적으로 ‘-도 역시’의 형태가 많이 쓰이므로 (122b)에서는 ‘-도’가, (123b)에서는 ‘역시’가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123)의 경우 (123b)에서 조사 ‘-도’는 (123a)의 ‘he’에 상응하는 대명사 ‘자기’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사 ‘too’는 한국어 번역시 대부분 ‘명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추가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부사는 also, even, too로 나타났는데, also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접속부사의 성격을 띠었고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사로 번역되었다. even은 모두 조사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장의 어느 구성성분에 붙느냐에 따라서 수식하는 대상이 달라졌다. too는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절을 수식했지만 영한 번역시 대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번역 형태를 보여 결국 영한 번역시 모두 명사를 수식한다는 잠정적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 3.2.7 인식부사

인식부사는 전체 부사 중 여섯 번(3.7%)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 1)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인식부사 중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certainly*, *possibly*, *probably* 세 단어로 나타났다.

##### ① *certainly*

*certainly*는 인식부사 전체에서 두 번(33.3%)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모두 생략된 채 번역되었다.

(124) a. It was certainly the most important point in my life. (RD 102: 86)

b. 그것은 ∅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점이었습니다.  
(RD 102: 87)

위의 예문 (124a)에서 전체 절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 ‘*certainly*’는 (124b)에서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 원래 ∅표기가 있는 자리에 ‘분명히’라는 단어가 번역될 수 있다.

##### ② *possibly*

possibly는 인식부사 전체에서 두 번(33.3%)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는 경우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125) a. But with fuel and possibly sewage in it, he knew it could be toxic. (RD 100: 18)

b. 하지만 연료가 섞여 있고 어쩌면 하수가 섞여서 그 물에는 독성이 있을지도 몰랐다. (RD 100: 19)

위 예문 (125a)에서 ‘sewage in it’을 수식하는 ‘possibly’는 (125b)에서 부사 ‘어쩌면’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possibly가 생략된 채 번역된 경우이다.

(126) a. “You did all you could possibly do.” (RD 100: 26)

b. “당신은 ∅ 최선을 다했어요.” (RD 100: 27)

위의 예문 (126a)에서 동사 ‘do’를 수식하는 부사 ‘possibly’는 (126b)에서 생략된 채 번역되었다. (126b)의 ‘최선’이란 단어 속에 ‘할 수 있는 한’이란 말이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③ probably

probably는 전체 인식부사에서 한 번(16.7%)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127) a. Brandon probably had anorexia. (RD 102: 8)

b. 신경성 식욕부진인 것 같다는 것이다. (RD 102: 9)

위의 예문 (127a)에서 동사 ‘had’를 수식하는 부사 ‘probably’는 (127b)에서 동사 ‘-것 같다’로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다음은 인식부사 중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 2)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

인식부사 중 수량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perhaps였는데, perhaps는 인식부사 전체에서 한 번(16.7%)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128) a. You will have to leave your jobs and your home for perhaps eight months. (RD 101: 22)

b. 아마 8개월 동안 직장과 집을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RD 101: 23)

위의 예문 (128a)에서 수량사 ‘eight’을 수식하는 부사 ‘perhaps’는 (128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아마’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인식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는 인식부사를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제 인식부사는 거의 다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고 번역 과정 중 동사로의 품사변화나 생략도 종종 있었다.

## 3.2.8 지속부사

지속부사는 조사된 전체 부사 중 네 번(2.5%)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still

still은 전체 지속부사에서 세 번(75.0%) 출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는 경우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129) a. He still wore mittens to prevent him from pulling out the tube ... (RD 101: 30)

b. 브랜든은 여전히 튜브를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여전히 병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 (RD 101: 31)

(130) a. Now, six hours later, it was still off limits. (RD 100: 12)

b. 6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그곳은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RD 100: 13)

위의 예문 (129a)과 (130a)에서 동사 ‘wore’과 동사구 ‘was ... off’를 각각 수식하는 부사 ‘still’은 (129b)와 (130b)에서 각각 부사 ‘여전히<sup>33)</sup>’와 ‘아직<sup>34)</sup>’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의하면 위의 두 단어는 유의어이다.

다음은 still이 생략되는 경우이다.

(131) a. Brandon had always been an affectionate boy and he still climbed into Al’s lap for a hug or held Marie’s hand sometimes when they were together. (RD 101: 14)

b. 집에 있을 때 브랜든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 아이여서 Ø 아빠의 무릎에 올라가 포옹하는가 하면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늘 엄마의 손을 잡았다. (RD 101: 15)

33) 여전히: 전과 같이(국립국어연구원, 1999).

34) 아직: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국립국어연구원, 1999).

위의 예문 (131a)에서 동사 ‘climbed’를 수식하는 부사 ‘still’은 (131b)에서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 (131a)의 문장에서 접속사 ‘and’를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의 시제가 각각 ‘대과거’와 ‘과거’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 still이란 단어를 밝혀 주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131a)의 접속사 ‘and’가 (131b)의 ‘-여서’로 번역될 때, 이 문장의 시제는 전체적으로 단순과거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 ‘여전히’라는 말을 첨가한다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 ② ever

ever은 지속부사 전체에서 한 번(25.0%)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번역되었다.

(132) a. But the disease was as strong as ever. (RD 101: 16)

b. 그러나 병은 매우 질겼다. (RD 101: 17)

위의 예문 (132a)에서 형용사 ‘strong’을 수식하는 부사 ‘ever’은 (132b)에서 부사 ‘매우’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지속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속부사에는 still과 ever가 있었는데 특히 still은 모두 동사를 수식하였고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 3.2.9 장소부사

전체 부사 중 두 개(1.2%)가 장소부사였고 아래와 같이 모두 절을 수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① below

below는 지속부사에서 한 번 출현하였고 아래와 같이 품사변환과 단어 첨가가 일어난 채 번역되었다.

(133) a. **Below**, I remind myself, billions of coral polyps—tiny sea anemone-like animals anchored to the reefs they helped build—are primed to conceive, an event so astonishing it has been described by scientists as “biological magic.” (RD 100: 78)

b. 이 바다 밑에는 산호초에 붙어살며 산호초 형성에 일조하는 말미잘 모양의 산호충 수십 억 개체가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산호초는 산호충들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다보니 과학자들은 “생명의 마술” 이라고 말해 왔다. (RD 100: 79)

위의 예문 (133a)의 부사 ‘below’는 (133b)에서 문맥상 ‘이 바다’란 말을 첨가하여 ‘이 바다 밑에는’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below가 직접적으로 해석된 말은 ‘밑에는’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명사 ‘밑’과 조사 ‘-에는’이 합쳐져 품사 변환된 채 부사역할을 한다.

② there

there도 지속부사 전체에서 한 번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134) a. **There**, doctors were astonished to discover that he

suffered only frostbite, dehydration, superficial cuts and hypothermia. (RD 100: 32)

- b. 거기서 의사들은 그가 동상과 탈수증, 경미한 찰과상과 저체온 외에는 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RD 100: 33)

위의 예문 (134a)의 부사 'there'은 (134b)에서 명사 '거기'와 조사'-(에)서'가 합쳐져 생긴 '거기서'란 말로 품사 전환되어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부사역할을 한다.

위에서는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지속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속부사에서 출현한 단어는 below와 there 두 개 뿐이었고 번역시 품사전환이 되는 모습과 단어가 첨가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 3.2.10 평가부사

조사된 전체 부사 중 2개(1.2%)가 평가부사였고 다음과 같이 모두 절을 수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 ① miraculously

아래 예문의 miraculously는 조사된 전체 부사에서 한 번 출현하였다.

(135) a. Miraculously both had missed him. (RD 100: 10)

- b. 기적적으로 스튜어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RD 100: 11)

위의 예문 (135a)의 부사 'miraculously'는 뒤의 절을 수식하고 있고

(135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기적적으로’로 번역되었다.

② regretfully

아래 예문의 regretfully는 조사된 전체 부사에서 한 번 출현하였다.

(136) a. Everyone knows that, but so regretfully few understand it. (RD 102: 100)

b. 이는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의미를 진정으로 사람은 드물다. (RD 102: 101)

위의 예문 (136a)의 부사 ‘regretfully’는 뒤따르는 절을 수식하고 있고 (136b)에서 독립된 형태의 부사 ‘유감스럽게도’로 번역되었다.

위에서는 병렬 언어 자료 속에 나타난 평가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나타난 평가부사는 모두 절을 수식하고 있고, 독립된 부사형태로 번역되었다.

### 3.2.11 도구부사

도구부사는 전체 부사에서 아래의 physically 1개(0.6%)로 조사되었다.

(137) a. His patient was hypothermic, but his pulse was strong, and he didn't appear physically distressed. (RD 100: 28)

b. 화자는 저체온증에 걸려 있었지만 맥박은 강했고 신체적인 어떤 이상도 나타나지 않은 듯했다. (RD 100: 29)

위의 예문 (137a)에서 분사 ‘distressed’를 수식하는 부사 ‘physically’는

(137b)에서 ‘신체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137a)에 있던 ‘distressed’라는 형용사가 (137b)에서 ‘이상’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식해주던 부사‘physically’도 형용사 ‘신체적인’으로 번역된 것이다.

지금까지 영한 병렬 언어 자료 RD100(2009) - RD102(2010)을 통하여 영한 번역시 부사의 번역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사의 종류는 총 11종이었으며 각각의 부사는 영한 번역시 다양한 문장구성요소를 수식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품사변화와 단어의 생략과 단어, 구, 절의 첨가에 의한 근소한 의미변화 혹은 완전한 의역 등 다양한 변화 형태를 보였다.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후행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 제4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영한 병렬 언어 자료 RD100(2009) - RD102(2010)을 통하여 영어부사의 한국어로의 번역시 변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영한 번역시 두 언어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품사의 변화, 의미의 변화, 생략, 첨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 본 것인데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영어부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는 영한 병렬 언어 자료에 있는 짧은 글 3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 속에 있는 영어부사를 찾아 그것이 번역된 한국어 단어를 찾고 그 두 개를 짝 지었다. 그 뒤 부사의 종류를 11가지로 분류하여 먼저 각각의 부사가 ‘문장구성요소 중 어떤 것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편의상 1차 분류하였고 이것을 다시 ‘품사의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있다면 어떤 품사에서 어떤 품사로 번역되었는가?, 첨가 혹은 생략된 것은 없는 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의 변화는 있는가?’의 기준에 준거하여 2차로 분류·분석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사는 총 161개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품사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49번으로 영한 번역시 30.4%에 이르는 부사가 품사변화를 보였다. 품사변환의 종류는 부사가 ‘명사+조사’로 변하는 경우, 부사가 조사가 된 경우, 부사가 동사가 된 경우, 부사가 형용사가 된 경우, 부사가 절로 바뀐 경우, 부사가 어미로 바뀐 경우, 부사가 관형사로 바뀐 경우가 있었다.

첫째로, 부사가 ‘명사+조사’로 번역되어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later’이 ‘다음(명사)+에(조사)’나 ‘나중(명사)+에(조사)’로 번역되는 경우나 ‘there’이 ‘거기(명사)+서(조사)’로 번역되는 경우, ‘below’가 ‘밑(명사)+에는(조사)’으로 번역되는 경우, ‘now’가 ‘지금(명사)+은(조사)’로 번역되는 경

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번역시 품사전환이 된 경우 중 28.6%를 차지하였는데 모두 시간부사(85.7%)와 장소부사(14.3%)였다. 둘째로, 비율이 높았던 품사전환 형태는 부사가 조사로 바뀌어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였다. ‘even’이 조사 ‘-도’나 ‘-조차’로 번역되는 경우, ‘only’가 ‘-만’으로 번역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품사 전환 중 24.5%를 차지하였고 모두 추가부사(58.3%)와 제한부사(41.7%)였다.

여기까지의 결과로 영한 번역시 ‘조사’와 관련하여 품사 변환하는 경우가 53.1%로 품사변환의 절반 이상이 ‘조사’와 관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체계의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눈여겨 볼만한 품사변환은 영어부사가 동사로 품사 변환하는 경우나, 영어부사가 형용사로 품사 변환하는 경우이다. 부사가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전체 품사변환 중 14.3%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법부사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다. ‘probably’가 동사 ‘-것 같다’로 번역되는 경우, ‘increasingly’가 ‘커지고’로 번역되는 경우, ‘heavily’가 ‘많고’로 번역되는 경우, ‘later’이 ‘지났다’로 번역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변환이 높은 유형은 부사가 형용사로 품사 변환되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모두 정도부사(40.0%)와 방법부사(60.0%)에서 일어났다. ‘spread quickly’가 ‘빠른 속도’로 번역된 경우, ‘dangerously low’가 ‘위험한 수준’으로 번역된 경우, ‘badly wrong’이 ‘큰 낭패’로 번역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사가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와 형용사로 번역되는 경우 모두 주위 환경에 의해 품사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The pulse-oximeter beeped rapidly.’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은 ‘맥박탐지기의 신호음이 빨라졌다.’로 해석 가능하다. 이 때에 ‘beeped’라는 동사가 명사 ‘신호음’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rapidly’란 부사가 동사 ‘빨라졌다’로 해석이 되었다.

또 ‘*physically distressed*’란 어구를 ‘신체적인 질병’으로 번역한 경우에 ‘*distressed*’라는 형용사가 명사 ‘질병’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식해주던 부사 ‘*physically*’가 형용사 ‘신체적인’으로 번역되었다.

품사변환은 이 유형들 외에도 부사가 절로 바뀐 경우, 어미로 바뀐 경우 그리고 관형사로 바뀐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품사변환이 된 전체 경우 중 각각 4.1%, 2.0%, 2.0%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사가 절로 바뀐 경우의 예로 ‘then’이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으로 해석된 경우를 들 수 있고 부사가 어미로 바뀐 경우는 ‘then’이 어미 ‘-고’로 바뀐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가 관형사로 바뀐 경우는 ‘nearly’가 ‘근-’으로 해석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부사의 생략현상은 전체부사 중 28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체 부사 번역 중 17.4%에 이르는 비율이다. 보통 글의 문맥상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 생략을 했는데 생략된 부사 중 대부분이 시간부사(39.2%)와 정도부사(28.6%)였다. 한편 생략이 되면서 동시에 문장에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deeply moved*’라는 문장을 ‘몹시했다’로 번역한 경우, ‘*moved*’자체로도 ‘몹시했다’로 번역이 되므로 ‘*deeply*’가 생략되었다고 간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moved*’는 보통 ‘감동받다’정도로 해석이 되고, ‘감동받다’란 말과 ‘몹시하다’라는 말은 의미강도의 차이가 있기에 이 같은 경우는 *deeply*가 생략된 동시에 동사의 의미강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한 번역시 부정어나 새로운 단어, 혹은 절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변하는 경우는 전체 부사 중 3.7%로 적은 비중이었으나 그 변화양상은 눈여겨 볼만하다. 먼저 번역시 부정의 의미가 첨가되는 경우로 부사 ‘*only*’를 ‘-외에는 없다’로 번역하는 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부사 *only*는 단순히 ‘-만(있다)’의 긍정적인 형태로 쓸 수도 있지

만 어떤 예에서는 ‘-외에는 없다’라는, ‘-만(있다)’와 같은 뜻이지만 부정의 어휘를 더한 형태로 번역한 경우였다. 두 번째로 영한 번역시 없던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I can’t really say.’라는 문장을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로 번역할 때, 부사 ‘really’가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잘’로 번역되었는데 이 때에 ‘확신의 정도가 낮음’을 강조하기 위해 ‘글쎄’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끝으로, 영한 번역시 완전한 의역으로 인해 절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We have to take this slowly.’라는 문장의 경우 ‘마음을 진정시키게. 침착해야 하네.’라는 문장으로 번역되었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게’라는 말은 아예 없던 하나의 문장을 임의로 첨가한 예이다.

개별적인 단어 측면에서 볼 때 조사결과 내에서 출현한 quickly, gently, reluctantly, still은 모두 동사만 수식한다는 것, most와 too는 형용사만 수식한다는 것, soon은 모두 절만을 수식하고 nearly는 모두 수량사만 수식한다는 것 등의 특징이 보였으나 주어진 예시 자체가 많지 않아 단정내리기 힘들다. 이외에도 only가 수량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모두 ‘일반적인 단일 부사’로 변화되는 패턴, also가 동사를 수식할 때 일반부사가 아닌 접속부사 ‘또(한)’으로 변하는 패턴, suddenly가 동사를 수식할 때에 접두사 ‘급-’으로 바뀌는 패턴은 후행연구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된 부사의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후행연구로 좀 더 많은 예를 조사하여 번역양상에 대한 확실한 범주를 제시하고 그러한 번역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혀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자료가 적어서 더 알아볼 수 없었던 위의 예시들이나 인식부사의 번역 패턴 등은 좀 더 눈여겨 볼만하다.

## 영한 병렬 언어 자료

*Reader's Digest* 100. 2009. 서울: 두산잡지 BU.

*Reader's Digest* 101. 2009. 서울: 두산잡지 BU.

*Reader's Digest* 102. 2010. 서울: 두산잡지 BU.

###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김기영. 2008. 「품사별 영문의역을 통한 영한 번역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김명애. 2008. 「영어 생물주어와 무생물주어의 한국어 번역유형 비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김아영. 2011. 「‘위대한 개츠비’에 나타난 구절동사의 번역 양상: up과 down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민중서림편집부. 2011. 「엣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박혜림. 2011. 「영한번역에 나타난 영어의 명사중심성격과 한국어의 동사중심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양진성. 2003. 「한국과 미국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Hofstede의 문화 표현 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경숙. 2003. 「영한번역에서의 품사전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

- 학교 대학원.
- 이형필. 2003. 「영어 부사류의 형태·의미·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 이희재. 2009. 「한국어가 바로 서는 살아있는 번역 강의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장은희. 2011. 「영한병렬언어자료에 나타난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번역」.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곽은주, 최정아, 진실로 (역). 2005. 「말 바꾸기」. 서울: 한국문화사.)
- Cowan, R. 2007.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ume I. Amsterdam: John Benjamins.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I」. 서울: 박이정.)
- Sinclair, J. 1992.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